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세가지만 고른다면?

이것들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31

믿음과 생명, 그리고 성령

## 1. 요한복음의 믿음은 무엇이 다를까?

믿는다 *pisteuein*와 믿음 *pistis*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믿는다’는 말이 애용된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여부나 신앙의 상태  
보다는 **하느님과의 능동적인 작용**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드라 슈나이더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은 믿는 행위  
혹은 우리의 믿음을 하느님께 둔다는 의미가 크다.

즉 요한복음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과 맺게 되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내가 세상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3:12)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4:39)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  
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11:27)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의 믿는다는 것은  
매우 감각적이거나 동적인 언어들로도 표현된다.

본다, 안다, 듣는다, 온다 등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

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1:12)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하고 말하였다.(1:46)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3:21)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6:35)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13:20)

신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행위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수동적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인가는 영성신학의 오랜 주제  
요한복음은 믿음이 인간의 주도적인 행위라는 관점에 서있다.

바로 그 이유로 pistis(믿음)가 아니라

pisteuein(믿는다)가 사용된 것



하느님의 부르심 혹은  
하느님께로 끌림은  
신앙에 앞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결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루돌프 불트만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신앙의 장애물은  
인간의 본성 혹은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3:19)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5:42)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주제가

가장 상징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2:1-4:54

카나 사이클 혹은 Cana-to-Cana section

(2장의 카나의 혼인잔치-카나의 궁정관리 아들 치유 사이의 이야기들)



카나의 혼인잔치; 첫번째 표징,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정화; 부활 이후 예수님 말씀 믿게 됨

예루살렘의 표징들; 표징을 보고 믿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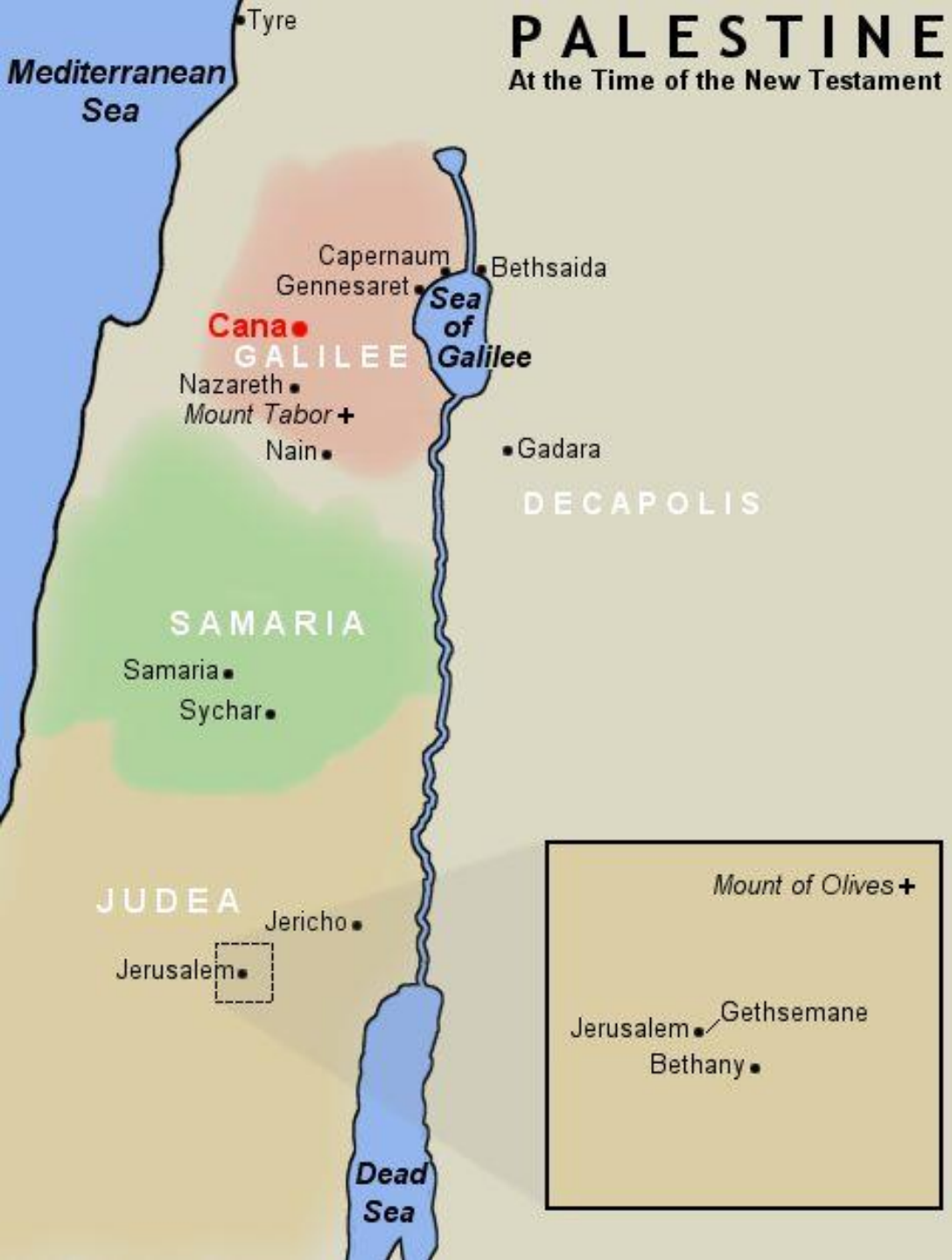
문제적 인물 니코데모; 불완전한 믿음

사마리아 여인; 과정으로서의 믿음

카나의 왕실관리; 두번째 표징, 관리 집안이 믿게 됨

# PALESTINE

At the Time of the New Testament



카나 사이클은 요한복음의 구조(플롯)이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마르타와 니코데모 역시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회색의 인물-로 그려진다.

## 복합적인 인물 마르타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11:27)

예수님께서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11:39)

## 문제적 인물 니코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3:10)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19:39-40)



요한복음의 이름있는 인물들 대부분이 믿음의 주제에서는

매우 다면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곧 요한복음의 믿음은 단순하면서도 굳건한 상태라기 보다는

역동적인 여정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심지어는 믿음의 언어인 보고 듣는 것조차도

곧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완전한 믿음은 보지 않고서 믿는 것이기 때문.

바로 같은 이유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표징이 결정적인 주제가 되지 못한다.

## 2. 믿는 자들이 얻게 된 생명은 무엇일까?

원래 구원론의 단어는 구세주, 구원과 같은 단어들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로 제시된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psyche**을 내놓는다.”(10:11)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zoe aionios**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5:24)

요한복음에서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크다.

구원 자체이며 하느님 왕국 자체이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3:3)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두가지 신학주제

위로부터 태어나기(새로운 혹은 영적 재탄생)

하느님 나라

‘위로부터 태어난다’의 의미는 곧바로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풀어주신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3:5)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새로운 생명으로 대체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3:15)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3:36)



믿음과 영원한 생명이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종말론적인 삶 혹은 내세의 삶을 의미할까?

이 질문의 답은 ‘영원한’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

그리스어 아이오니오스(영원한, aionios)는

시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공간적 질적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이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5:24)

-이는 믿는 이들이 향유하는 특별한 방식의 삶의 태도를 의미

살아 계신zon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zoo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zesei이다.(5:24)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이 생명zoe의 유무로 구분된다.

그렇기에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맺는 믿음과 연관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상태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관계적 측면인 셈이다.

이는 유대교의 종말론, 즉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과 다르다.

예수님의 삶, 수난, 죽음,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종말론적 실체가 된다.

그 유명한 “이미 하지만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종말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종말 eschaton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자.

종말은 끝이라기 보다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

그리스어 에스카톤은 끝도 의미하지만 목표를 의미하기 때문



그런 점에서 영원한 생명은 유대교 종말론적 의미인 불멸 보다는  
좀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이다.

요한복음 특유의 상징적 표현이 오해를 야기한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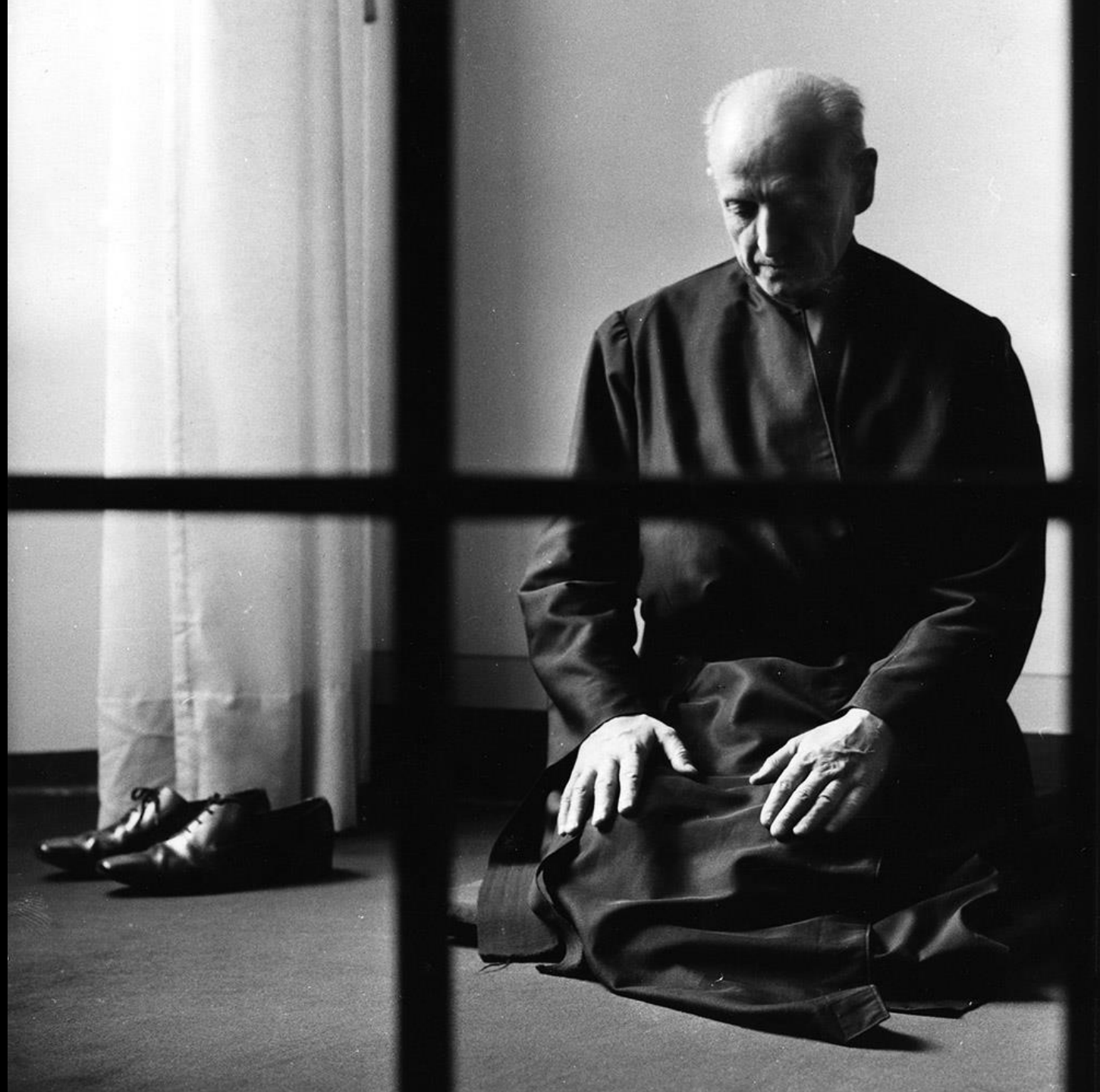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4:15)

요한복음의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열망과 특별한 변화의 상태를 표상한다.

미래의 부활(전통적 종말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다른 결의 종말론(실현된 종말론)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이라는 위대한 지혜와 ‘내 영혼의 손님’과의 내적인 대화.

내 생각에 이 시기는 내 삶 전체에서

가장 배움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내 감방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페드로 아루페

### 3. 성령은?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1:32)

## 작은 해석상의 문제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15:26)

성자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 구분 설명(피오레의 요아킴 방식)

예수님 활동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현존 설명

요한복음의 종말론 역시 이미 실현된 종말론임을 고려하면  
성령 역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음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 이 바로 그때다.”(4:23)



요한복음의 파라클레토스(보호자) 성령은 무엇인가?

‘곁에 오도록 불려진 자’

그리스어의 의미는 중재자, 조력자 등의 의미

구약의 희랍어판(70인역)에는 이런 단어는 없음

많은 연구자들은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의 **법정 모티브**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한다.

하느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뉘앙스의 모티브(13-17)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15:26-27)



고대 지중해 지역의 **보호자-피보호자** 관계가  
요한복음의 하느님,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관  
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레이먼드 브라운

설득력이 큼

대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해석은 미지(未知)의 기호를 기지(既知)의 기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하일 바흐친

# 정리

요한복음의 흐름은 믿음-생명-성령의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믿음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명은 믿음의 결실로 이는 믿는 이들이

향유하는 특별한 상태이다.(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이며

성령은 신앙공동체를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